

문화전당, 국제수준 '문화아카데미' 만든다

추진단, 문화부 본부 직제 편입... 위상 재정립 검토

전당 정상화 해법 포럼 앞두고 소순천 단장 밝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업무를 도맡고 있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추진단)이 문화부 본부 직제에 편입돼 위상이 재정립될 것으로 보인다.

추진단은 박근혜 정부에서 조직이 축소돼 사실상 파견조직으로 구성된 문화부 외곽조직으로 전락한 상태다.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 문화아카데미’도 국제적 수준의 문화예술 교육기관으로 육성된다.

소순천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아문단장)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문화전당 정상화 해법” 포럼에 앞서 28일 공개한 토론문에서 이같은 방안을 밝혔다. 이는 문화부 주무 부서의 공식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등이 주관하는 이 포럼은 오는 29일 5·18민주화운동 기록관 7층에서 열린다.

추진단이 밝힌 문화전당 활성화 방안은 위상 재정립과 운영 조직 정비다. 세부적으로 그동안 예산이 없어 추진되지 못했던 국제개발협력(ODA) 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문화전당 내에 4차산업 창의콘텐츠 플랫폼 ‘예술기술융합센터’가 조성된다.

문화부 조직인 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간 이원적 업무 체계로 빚어지는 비효율을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그동안 두 기관이 문화전당을 운영함으로써 ‘육상육’ 논란 등이 있었다.

소 추진단장은 “우선 단계적으로 실행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고 추후 법인화 등 조속한 일원화를 위한 방안 검토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이 (조직)일원화할 경우 추진단 조직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문화전당 개관에 앞서 법인화

를 지역 사회에서 반대했던 만큼 논란도 예상된다. 법인화는 정부 직접 운영이 아닌 별도 법인(현 아시아문화원)에 의한 운영을 뜻한다.

추진단은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핵심 현안인 7대 문화권 조성사업을 본래에 올려놓기 위한 로드맵도 제시했다. 광주를 7개 권역으로 나눠 문화 인프라 등을 확충하는 이 사업은 예산의 한계 때문에 인실상 제자리걸음 상태였다.

추진단은 우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7

문화전당 활성화 방안

- 국제개발협력 사업 본격 추진
- 4차산업 창의콘텐츠 플랫폼 ‘예술기술융합센터’ 조성
- 전당 운영주체 법인화 등 추진

대 문화권 등 조성사업 콘텐츠 개발 TF를 구성,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광주 시민단체, 예술단체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7대 문화권 조성사업 예산 확보를 위한 전문가 워크숍, 포럼 등 다양한 형태의 집중토론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도출한다.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문화전당 전시,

문화콘텐츠 창·제작 참여 확대도 검토된다.

소 추진단장은 지역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문화전당 진입 장기지역과 관련, “전당 진입 절차를 조속 추진하되, 전당 활성화를 위해 전문성과 리더십을 갖춘 역량있는 인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문화전당 옛 전남도청(민주평화교류원) 복원 문제와 관련, “문제부도 충분히 경청하고 수용하는 자세로 ‘옛 전남도청 보존을 위한 법’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포럼 등 다양한 형태의 집중토론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도출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도심텃밭 체험행사 28일 광주시 서구청 텃밭에서 ‘도심텃밭 체험행사’에 참가한 광주 리라유치원생들이 방울토마토·오이·가지 등 채소를 직접 수확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헌정 사상 첫 전국 단위 ‘상설 판사회의체’ 생긴다

양승태 대법원장 ‘판사회의 상설화’ 전격 수용

양승태 대법원장이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가 요구한 판사회의 상설화 방안을 전격 수용했다.

9월 퇴임을 앞두고 일선 판사들의 거둔 사법개혁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전국 단위의 상설 판사회의체가 생기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판사들이 인사 등 사법행정에서 목소리를 낼 통로가 생기면서 대법원장의 권한

은 대폭 분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아래로부터의 선제적 개혁’은 국회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개헌 논의와 함께 사법부의 지형을 크게 바꿔놓을 전망이다.

양 대법원장은 28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을 통해 “향후 사법행정 전반에 대해 법관들의 의사가 충실히 수렴·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상설화하는 결의를 적극 수용해 추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양 대법원장은 이를 위해 현재 대법원장의 행정 권한을 수행하는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구성·기능을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판사회의의 축에 승진·근무평정·연임제도·사무분담 등을 포함한 각종 제도개선을 함께 논의하고자 제안했다.

이번 사태는 법원행정처 고위간부가 대법원장에 비판적인 내용을 담은 법원내 학술모임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세미나를 연기·축소하기 위해 올해 초 연구회

소속 판사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촉발됐다.

이후 행정처가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추가 의혹이 제기되면서 일선 판사들이 8년 만에 전국 단위 판사회의체를 조직해 나서는 등 파동이 일었다.

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이끈 이인복 전 대법관은 이규진(55·사법연수원 18기) 당시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법 부장판사)이 부당지사를 내린 장본인이며 ‘블랙리스트’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결론 내렸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전 상임위원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다. /연합뉴스

‘친호남 정책’ 지역 소비심리 꿈틀

광주형 일자리 예산 반영·한전공대 가시화 심리지수 2013년 9월 이후 전국 평균 상회

문재인 정부의 잇단 ‘친호남 정책’ 덕분에 광주·전남지역 소비심리가 꿈틀거리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한 예산이 반영되고, 한전공대 등의 건립이 가시화되면서 소비심리지수가 지난 2013년 9월 이후 처음으로 전국 평균을 앞질렀다.

특히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아 취업기회전망은 관련 통계 제공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났다.

28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6월 소비자동향조사에서 소비심리지수(CCSI)는 112.5로 전월보다 6.6포인트 올랐다. 전국은 111.1로 지난달에 비해 3.1%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 9월 이후 광주·전남의 소비심리지수가 전국 평균을 앞지른 것은 처음이다.

소비자동향지수는 일종의 심리 지표로 장기평균치(2003년 1월~2016년 12월)를 기준값 100으로 하고, 100보다 크면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이고, 적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향후 경제를 낙관적으로 보는 소비자가 많아 광주·전남의 소비심리지수가 다른 지역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는 뜻이다.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예산 반영으로 취업 기회가 늘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이번 조사에서 취업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광주·전남지역의 취업기회전망은 123으로 전월대비 무려 18포인트 상승했고, 전국 평균 121보다 컸다. 수도권에 비해 광주·전남지역의 취업기회전망이 높은 건 이례적인 일이며, 지난 2009년 1월 통계 발표 이후 6월 이 지역의 취업기회전망 수치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배석진 조사역은 “문재인 정부가 광주형 일자리에 관심을 보이고, 한전공대의 설립을 통해 관련 일자리가 늘고 지역 경제가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는 소비자들이 늘어 이번 조사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일자리 추경에 광주형 일자리 예산을 반영했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100대 국정과제에 광주·전남 상상을 위한 대선공약이었던 에너지 신산업 매가 육성과 한전공대 설립이 미래첨단 친환경 및 인력양성 정책에 포함됐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박 전 대통령 비선진료 묵인

이영선 前 경호관 징역 1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를 묵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날 선고는 “비선진료”, ‘삼성합병 압박’, ‘정유라 특혜 비리’ 사건에 이어 국정농단 혐의에 대한 네 번째 유죄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는 28일 의료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경호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 치료 아줌마’ 등을 청와대에 출입시키는 업무를 비롯해 대통령의 건강 관련 업무를 전담하면서 이들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이들의 청와대 방문일정을 잡고 장소를 안내한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력한 것”이라며 “출입이 통제된 청와대에 비교적 간단히 차에 탑승해 출입한 점도 의료법 위반을 용이하게 방조했다고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본사인사

- ▲채희중:논설위원
- ▲윤영기:편집국 사회부장
- ▲송기동:편집국 예방부장
- ▲정숙진:업무국 지방부장 겸 시판부장
- ▲박성현:편집국 문화부 부장(예향 겸임)
- ▲박정욱:편집국 전남본부 차장
- ▲김지을:편집국 전남본부 차장
- ▲박진표:편집국 사회부 차장
- ▲오광록:편집국 정치부 차장
- ▲주각중:동부취재본부 고층주재국장
- ▲박영진:동부취재본부 광양주재부장
- ▲고규석:서부취재본부 목포주재부장
- ▲김준석:서부취재본부 목포주재부장
- ▲이상선:서부취재본부 신안주재 부국장
- ▲박현영:서부취재본부 진도주재 부국장
- ▲박희석:서부취재본부 해남주재 부국장
- ▲최승렬:중부취재본부 광산주재 부국장
- ▲문병선:중부취재본부 영암주재 부국장
- ▲남철희:중부취재본부 강진주재 부장
- ▲조성수:중부취재본부 화순주재 부장
- ▲박기섭:전북취재본부장 겸 정읍주재국장
- ▲박금석:전북취재본부 군산주재국장

(6월 29일자)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태광공인중개사

상가건물

1. 송촌동 5층 상가건물 대200㎡ 매11,8억원(보9,500 월500 포함)
2. 월곡동 4층 상가건물 대471㎡ 매14,8억원(보1,5억 월780 포함)
3. 용봉동 4층 상가건물 대468㎡ 매11,8억원(보1,2억 월650 포함)
4. 신가동 3층 상가건물 대273㎡ 매9,3억원(보8,000 월450 포함)
5. 신창동 3층 상가건물 대1,050㎡ 매50억원(보6억 월2,000 포함)
6. 노대동 3층 상가건물 대831㎡ 매26억원(보1,5억 월1,222 포함)
7. 쌍암동 6층 상가건물 대421㎡ 매22억원(보1,6억 월1,300 포함)
8. 서석동 4층 상가건물 대120㎡ 매4,8억원(보5,000 월180 포함)

상가주택

1. 신정동 3층 상가주택 대180㎡ 매8억원(보6,000 월370 포함)
2. 일곡동 3층 상가주택 대360㎡ 매6,8억원(보2,7억 보9,000 포함)
3. 장덕동 3층 상가주택 대310㎡ 매10,3억원(보3,7억 월280 포함)
4. 일곡동 3층 상가주택 대250㎡ 매5,9억원(보6,000 월240 포함)

공장/토지/기타

1. 도천동 하남신단9번로 광산C 입구 공장2동 대1,218㎡ 매12억원
2. 진도군 군내면 나리 바다조망 임야48,600㎡ 매6,6억원
3. 신가동 생산복지 담745㎡ 매3,65억원
4. 하남동 일반상업지역 대로변 대770㎡ 매23억원
5. 광산구 도천동 자연복지 전1,207㎡ 매2,9억원
6. 산월동 자연복지 택지조성완료 대290㎡ 매3,3억원
7. 장성군 남면 녹진리 1중일일부거 전2,115㎡ 매2,8억원
8. 매곡동 대광로제비양 1층 상가 주출입구코너 7㎡ 매5,2억

부동산 매물 상담 환영
010-2572-4663 **홍창경**
북구 문화예술회관 근처

태성공인중개사

상가 / 상가점포

- 금호동 7층 건물(보증금 5,4억 월1,300만) 매 32억원
- 금호동 6층 건물(보증금 2,4억 월1,500만) 매 36억원
- 치평동 5층 건물(보증금 1,7억 월980만) 매 25억원
- 흑석동 5층 건물(보증금 3,4억 월1,500만) 40억원
- 하남동 3층 건물(보증금 6,2억 월2,200만) 매 50억원
- 월계동 12층 상가점포 720㎡ 매28억원(보2억원, 월1,200만 포함)
- 월계동 1층 상가점포 150㎡ 현 의류점 입점 매 13억원 (보1억5천, 월5백만 포함)
- 월곡동 5층 건물(보증금 4억 월 460만) 매 25억
- 쌍암동 4층 건물(보증금 1,3억 월 1,400만) 매 29억
- 쌍암동 5층 건물(보증금 3억 월 1,450만) 매 35억
- 신가동 4층 건물(보증금 6천만 월 520만) 매14억
- 송정동 2층 상가건물 대385㎡ 건물500㎡ 매 13억

토지

- 용전동 생산복지, 대로전 9,400㎡ 매 48억원
- 산정동 생산복지, 창고용지 3,810㎡ 20억
- 산정동 생산복지 창고용지 도로접 990㎡ 5억원
- 광산구 대산동 계획관리지역 전 30,000㎡ 매 45억 (물류창고, 야적장 적합)
- 광산구 대산동 임야 36,000㎡ 매 3억
- 남평읍 우산리 계획관리지역 담 3426㎡ 4억2천만원 (가든식당 적합)
- 장성군 삼서면 홍정리 대지 1316㎡ 매1억4천(지대농음, 남향)
- 담양군 수북면 수북리 계획관리지역 전 5,000㎡ 매 8억3천
- 담양군 월산면 계획관리지역 전 30,000㎡ 매 16억원
- 담양군 남면 학선리 대지 1390㎡ 매 3억1천만원
- 담양군 대전면 대지리 창고용지 4,500㎡ 매 21억원
- 담양군 봉산면 가곡리 전 3,000㎡ 매 1억8천만원

매물 접수, 상담 환영
문의 010-5536-0382 **정현철**
광산구 장덕동 롯데마트 부근

쇼핑몰 MD, 웹디자이너 모집

농협회사법인(주)조이아드와 함께 온라인 식품산업을 선도할 책임감 있고 열정적인 인재를 채용합니다.

당사는 2001년부터 17년간 종합쇼핑몰, 홈쇼핑몰, 소셜커머스, 오픈마켓 등에서 농수축산물부문 전자상거래 산업을 선도해 오고있는 온라인 식품종합전문기업입니다.

모집부문

구분	인원	부문	주요업무
식품MD	0명	신입 및 경력	상품관리 및 기획, 상품개발
웹디자이너	0명	경력	웹디자인, 콘텐츠제작
상품포장	0명	무관	농산물 택배포장

전형방법

1. 차: 서류심사
2. 차: 면접(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1.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2. 웹디자이너는 포트폴리오 첨부
3. 접수방법: 이메일(shop@joyard.co.kr) 접수
4. 접수기간: 2017년 6/26일~7/7일까지

기타사항

1. 문의처: 062-523-2530 / 010-7713-2530
2. 소재지: 광주광역시 북구 하서로 290-34 (양산동 401-18) 본선산단 내
3. 근무시간: 월~금, 08:30~18:30

농협회사법인(주)조이아드
http://www.purgen.co.kr